

##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평양을 방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을 영접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11월 4일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을 영접하시였다.

국기계양대에는 우리 나라 국기와 쿠바공화국 국기가 나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군중들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과 쿠바친선의 불멸의 년대기에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오후 1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이 탄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타 베라싸녀사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와 3년만에 또다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맞이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타 베라싸녀사에게 녀성근로자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에게 마중나온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소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쿠바측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쿠바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례포가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과 함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은 사열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답례를 보내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이 탄 차는 모터썰미의 호위를 받으며 속도로 향하였다.

혁명적쿠바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을 태운 차가 지나는 평양의 거리들과 살림집창가들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이 순안구역과 료문동, 룡홍다리를 지나 려명거리입구에 멈춰섰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이 차에서 내리자 녀성근로자가 친선의 정을 담은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함께 무개차에 옮겨라시였다.

조선과 쿠바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연도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라신 무개차가 려명거리를 지나는 연도에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이 《평양》, 《아바나》, 《환영》, 《친선》, 《단결》이라고 웨치고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들을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하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라신 차는 환영의 연도를 지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하였다.

백화원영빈관 종업원들이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타 베라싸녀사를 숙소의 방으로 직접 안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숙소에서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소를 나누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과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4일 오후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과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백화원영빈관 회담실앞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위원장과 리스 꾸에스타 베라씨녀사와 따뜻한 분위기속에 만나시어 두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신 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김정은원수님과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위원장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

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우정과 신뢰, 친선단결의 불태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표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위원장은 김정은동지와 조선당과 정부, 평양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열광적인 환영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은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꽃피어 전진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

르무데스위원장께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두 나라 당과 국가활동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호상 통보하시고 그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명하시였으며 경제, 문화, 보건, 과학기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를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토의하시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조선로동당과 쿠바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증대한 문제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되였으며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를 같이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께서는 두 나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혁명적원칙과 동지적의리,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특수한 친선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발전시켜오신데 대하여서와 새로운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력사와 전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더욱 공고 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강화해나갈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이 11월 4일 오후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공연장소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위원장과 리스 꾸에스타 베라씨녀사를 맞이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위원장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위원장과 함께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여성예술인들이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빈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환영예술공연무대에는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전자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쿠바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수룩만리 떨어진 머나먼 지구의 서반구에서 평양을 찾았온 쿠바의 친선사절들을 환영하여 예술인들은 남성합창 《7월26일행진곡》, 여성중창과 남성

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여성중창 《사회주의쿠바》,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노래 묶음 《관파나메라》, 《매혹적인 처녀》, 《아름다운 쿠바》, 여성중창과 남성합창 《쿠바씨 양키노》를 비롯한 두 나라의 명곡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쿠바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며 조선과 쿠바와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형제적인 쿠바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이 넘쳐흐르는 중무들은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은 앞으로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종곡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빛나는 조국》으로 끝났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실현에서 어깨걸고 나아가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단결과 전투적우의를 힘있게 과시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출연자들에게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위원장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위원장과 함께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빈은 자기들을 극진히 환대해주고 훌륭한 공연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11월 4일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께서는 환영연회 장소의 홀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베라씨녀사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겔 마

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의 이번 상봉이 두 나라 친선관계를 영원히 계승해나가기 위한 의지를 과시하는 분수령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과 쿠바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건히 한전호에 서있다고 하시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쿠바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선적인 쿠바당과 정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절대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과 쿠바사이의 전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이 답례연설을 하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은 쿠바에서의 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을 방문한것은 조선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쿠바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뚜렷한 표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쿠바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

의 정을 안고 따뜻이 맞이해주고있으며 훌륭한 환영공연무대를 펼치고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고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이 쿠바인민의 정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피력하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청하시어 또다시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따뜻한 담화와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5일 오후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청하시어 또다시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따뜻한 담화와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현관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베라씨녀사를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방문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베라씨녀사를 뜨거

운 동지적우애와 친선의 정을 안고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베라씨녀사에게 본부청사를 소개하신 후 면담실로 안내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 리스 꾸에스따 베라씨녀사와 한가정처럼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며 친교를 두터이 하시였다.

두 나라 지도자께서는 호상 자기 나라의 형편을 통보하시고 사회경제발전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시였으며 두 당, 두 나라의 당활동

과 사회주의건설, 조선반도정세와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을 나누시였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깊이 토의하시였다.

담화는 격의없는 동지적감정속에 오랜 시간 이어졌다.

이어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베라씨녀사를 본부청사 만찬장으로 안내하시고 가장적분위기가 넘쳐흐르는 식탁에 마주앉으시였다.

두 지도자내외분들께서는 한가정처럼 모여앉은

만찬장에서 서로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로부터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풍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제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베라씨녀사는 자기들의 이번 방문이 조선당과 정부, 조선인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극진한 환대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두 지도자내외분들사이의 만남은 시종 친근하고 우애의 정이 넘쳐흐르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과 함께 11월 5일 저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설주녀사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빼라싸녀사와 함께 5월1일경기장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면서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시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쿠바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함께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빼라싸녀사에게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쿠바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이 뜨겁게 끓이치는 경기장에 환영의 꽃물결, 춤물결이 설레이는 속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시작되였다.

출연자들은 회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력부강하며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놓았다.

씩씩하고 기백넘친 집단체조와 천변만화하는 대규모의 배경대,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황홀하고 우아한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맺어진 형제적이며 전투적인 친선단결의 전통을 길이 빛내여갈 두 나라 인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조선—쿠바친선장은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배경대에 《공동의 위업 전투적단결》, 《불매의 조선—쿠바친선 만세!》 등의 글발들이 련이어 새겨지고 쿠바인민의 투쟁정신과 사상감정을 반영한 《관파나메라》, 《7월26일행진곡》, 《피멸에게 드리는 노래》에 맞추어 쿠바의 민속무용들이 펼쳐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자랑찬 발전면모와 인류 자주위업의 광명한 미래를 환희로운 예술의 세계로 보여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진감하고 축포탄들이 일제히 터져올라 평양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굳게 잡으신 손을 높이 드시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함께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출연자들을 축하하시였다.

본사기자

## 미 겔 마 리 오 디 아 스 까 넬 베 르 무 데 스 쿠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겸 내 각 수 상 이 만 수 대 창 작 사 를 참 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과 리스 꾸에스따 빼라싸녀사는 11월 5일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과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을 만수대창

작사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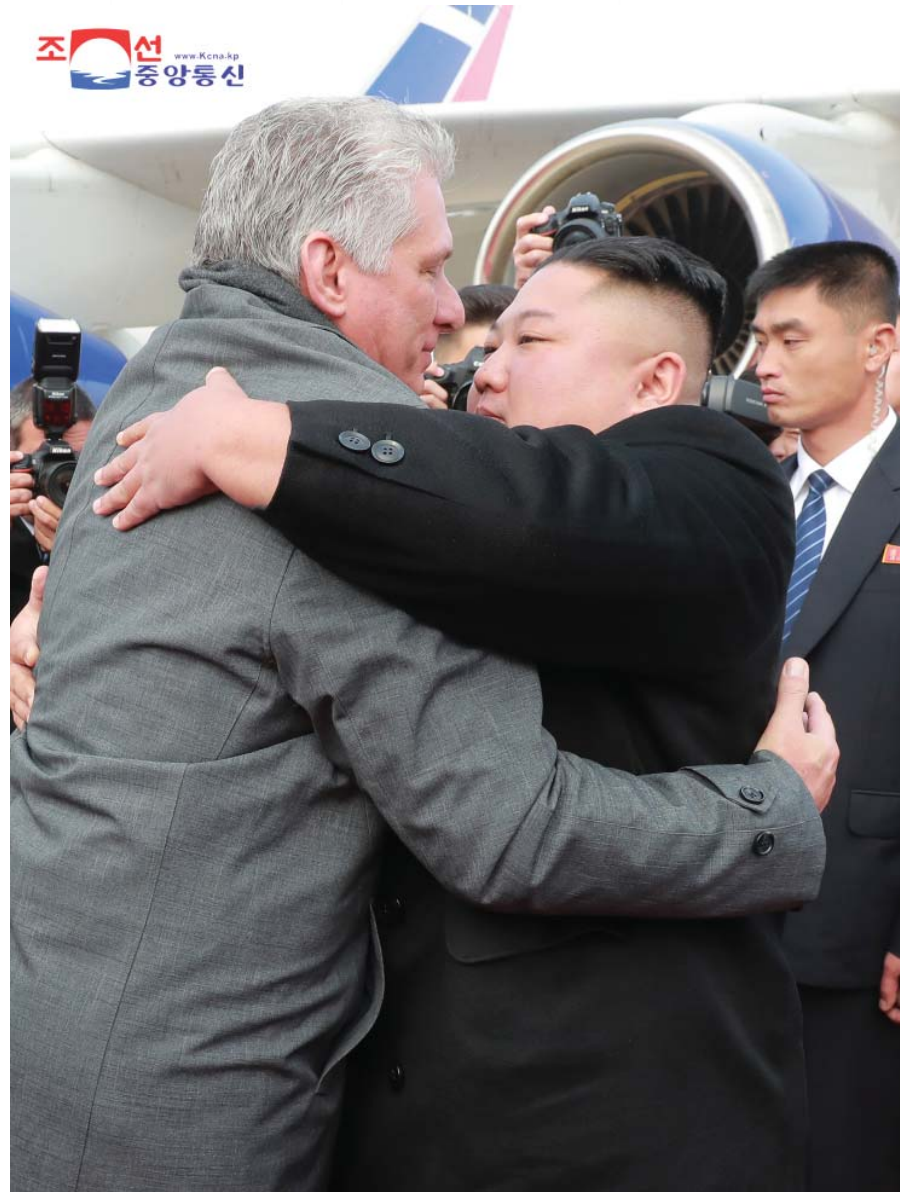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따 빼라싸녀사는 창작사가 세계적인 미술창작기지로 훌륭히 꾸려진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미술작품전시관을 돌아

보았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명작품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환송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이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1월 6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어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마 베라싸너사를 따뜻이 환송하시였다.

이날 평양국제비행장과 시내거리들은 조선꾸바 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장을 펼치고 떠나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을 배려하는 뜨거운 환송분위기가 흘러넘쳤다.

속소로부터 평양국제비행장까지의 수십리 연도에는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 흔들며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친근하고 귀중한 벗들을 배려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

스마 베라싸너사를 배려해주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와 기다리시였다.

꾸바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을 태운 차행렬이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순간, 환영곡이 울리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의 합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차에서 내린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마 베라싸너사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서로의 마음속에 두터이 쌓인 정을 터놓으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이어 비행장에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쿠바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마 베라싸너사에게 녀성근로자들이 향기로운 꽃다발을 드리였다.

두 나라 지도자내외분들께서는 각각 쿠바공화국 대표단 성원들과 환송나온 우리측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박3일간의 길지 않은 체류기간이었지만 뜨겁고 진실한 정을 맺고 더욱 가까이진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마 베라싸너사의 작별의 순간을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언제나 꾸바인민과 당신결에는 자신과 우리 당과 인민이 함께 있을것이라고 따뜻이 말씀하시며 귀로의 안녕을 축원하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은 최상의 특전과 극진한 환대를 받은 이번 평양방문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온갖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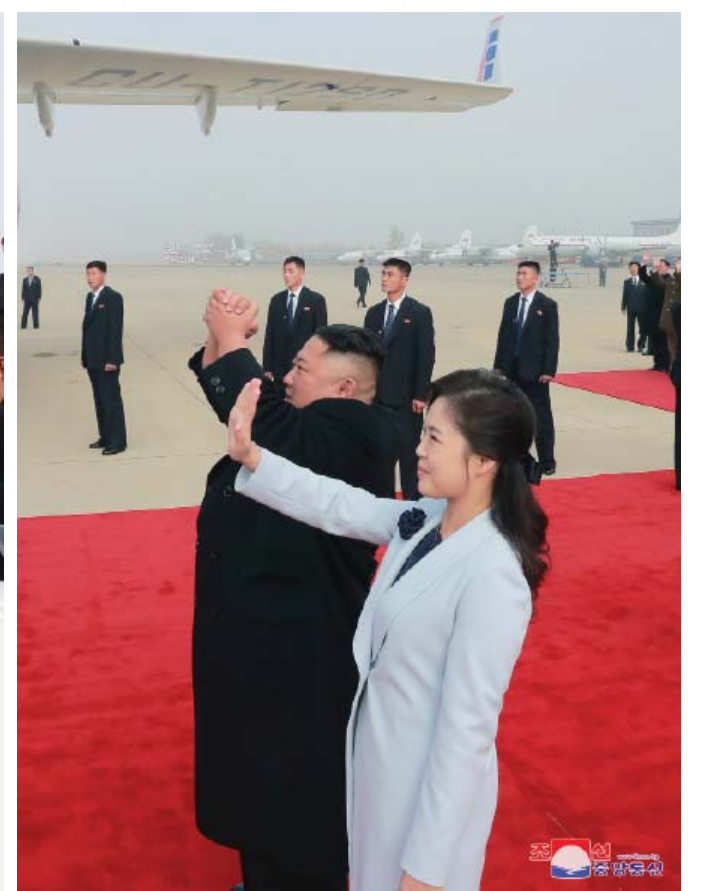
의를 다하고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해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와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심장에 안고 간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께서는 사회주의기치를 함께 추켜든 이 손을 절대 놓지 말고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곳곳이 전진시켜나갈 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위원장과 리스 꾸에스마 베라싸너사는 평양시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비행기에 올랐다.

쿠바공화국대표단을 태운 비행기는 오전 11시 20분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형제적꾸바인민에게 보내는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담아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을 태운 비행기를 향하여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중 예술인들의 합동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조중 예술인들의 합동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장에 도착하시자 락수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 부장, 왕야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리군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예술인대표단 성원들, 리진군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중국 예술인들이 향기그옥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

화국 주석께서 파견하신 관록있는 중국 예술인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중국의 유명한 예술인들의 평양 방문은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락수강 중국 예술인대표단 단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속에 평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게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 예술인대표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조중친선을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중국 예술인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대표단 주요 성원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환호를 올리면서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영원불멸할 공헌을 하시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마련된 조중 예술인들의 합동공연에는 우리 나라 예술인들과 중국의 이름난 지휘자, 가수, 연주가, 무용배우, 영화배우들이 함께 출연한 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띠였다.

날로 만발하는 조중친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 《붉은기 펠펫》, 혼성2중창 《새 세계》, 녀성독창 《화창한 봄날》, 《꽃피는 일터》, 《불타는 소원》, 《영웅찬가》, 남성독창 《나의 미래는 꿈

이 아니다》,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며》, 《지나온 길》, 무용 《꽃보라 날린다》, 녀성2중창 《장강의 노래》, 혼성2중창 《공화국에 대한 사랑》, 합창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나의 중화민족을 사랑하네》 등 두 나라의 명곡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뿌리깊은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두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서적감정을 훌륭한 음악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랜 역사적전통을 가진 조중예술교류의 친화력과 생명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친선의 정과 우의가 뜨겁게 넘쳐나는데서 조중친선의 불태성과 공고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새겨준 조중 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은 합창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로 끝났다.

두 나라 예술인들이 마음과 목소리

를 합쳐 조중친선의 보다 아름다운 레일을 노래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었으며 관람자들이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대에 오르시여 중국의 이름난 예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중국 예술인들은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극장에 나오시여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연에 출연한 중국의 예술인들이 들던바 그대로 명배우들이라고 감탄하시면서 중국의 이름난 배우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모두가 감정이 풍부하고 개성이 뚜렷하

며 섬세한 예술적형상력으로 성의를 다해 공연을 진행하였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공연, 한번 더 보고싶은 공연이라고, 평양에서 훌륭한 공연을 펼쳐준 중국의 이름난 예술인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의 뜨거운 정이 넘쳐흐르는 공연을 보면서 력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앞으로 더욱 개화발전할 것이며 그 밝은 전도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중국의 이름난 예술인들을 평양에 보

내주어 이렇듯 황홀한 공연무대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준 경애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중국당과 정부, 인민에게 자신과 우리 당과 정부, 인민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 예술인대표단 성원들이 평양체류기간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고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온 조중문화교류의 훌륭한 전통을 더욱 빛내어갈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뜻과 의지가 친선의 찬가가 되어 메아리친 공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승화되는 조중친선관계발전의 력사적인 려정에 감동깊은 화폭으로 새겨질것이다.

본사기자



# 자주와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하시여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다. 공화국은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친선우호,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비범한 정치실력과 령도공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비상히 강화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신다.

최근 지구의 서반구에서 대양과 대륙을 넘어 평양을 방문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쿠바공화국 국가사회위원장 겸 내각수상을 만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봉과 회담석상에서 그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우정과 신뢰, 친선단결의 불패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었다.

조선과 쿠바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건히 한전호에 서있다고 하시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쿠바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선과 쿠바사이의 전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쿠바공화국 국가사회위원장 겸 내각수상은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은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꽃이 피는것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였으며 조선인민이 쿠바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따듯이 맞이해주고있는데 대하여서와 쿠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초청하시고 이어주시신 고이께서는 기어이신 최상의 특진과 극진한 환대속에 진행된 쿠바공화국 국가사회위원장 겸 내각수상의 조선방문은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계속발전시켜나가는데서 력

사적인 분수령으로 되었다. 조중친선의 뉴대에 영원불멸할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 전 조선을 방문한 중국예술인대표단을 만나시었다.

대표단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시면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중국의 유명한 예술인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중국 예술인대표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조중친선을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예술인들과 중국의 지휘자, 가수, 연주가, 무용배우 등 이있는 예술인들이 출연한 조중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출연자들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부러움의 열의를 나타내며 이 어진 두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정서적감정을 훌륭히 음악형상으로 보여주어 옅은 력사적전통을 가진 조중예술교류의 친화력과 생명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었다.

우리 나라 예술인들과 마

음과 목소리를 함께 조중친선의 보다 아름다운 레일을 노래한 중국예술인들은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평양에서 훌륭한 공연을 펼친 중국 예술인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의 뜨거운 정이 넘쳐흐르는 공연을 보면서 력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앞으로 더욱 개발발전할것이며 그 맑은 전도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마련된 공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되는 조중친선관계발전의 력사적인 령도에 감동깊은 화곡으로 새겨지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기치, 반제주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탁월하고 세련된 정치가로서 세계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본사기자 리 설

오늘날 사회발전에 이르는 길은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국가들은 과학기술경쟁을 벌리고있다.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기술의 노로 된다는 말은 지식경제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이고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공화국은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힘을 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 해 첫 현지지도의 뜻을 자욱을 국가과학원에 새기신 것도 과학중시의 정책을 잘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

# 과학이론 흥하는 시대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이다. 오늘날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국가들은 과학기술경쟁을 벌리고있다.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기술의 노로 된다는 말은 지식경제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이고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공화국은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힘을 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 해 첫 현지지도의 뜻을 자욱을 국가과학원에 새기신 것도 과학중시의 정책을 잘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

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할수있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루려 하고있다. 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여 나서는 고이께서는 이 뜻이 새겨진 자욱을 국가과학원에 새기신 것도 과학중시의 정책을 잘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고 평하였다.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높여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고 평하였다.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높여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

주제 105(2016)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신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 무조건 해결해야 할 중대사

주제 103(2014)년 한해가 다 저무는 12월의 어느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시 남포구 신촌동에서 열린 김정은원수님께서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 첫 갈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해주시여

공업적방법으로 생산된 첫 갈제품이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고있다. 첫 갈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식생활에 리용하여온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이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세나라시기 고구려사람들이 물고기배장조리 첫 갈을 담고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당시에는 물론 국가적인 연회나 제상에도 첫 갈이 놓였다고 한다.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 그 재료와 조리법이 더욱 다양해져 물고기, 조개류, 알류첫 갈 등 가지수가 늘어났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짬짬하면서도 특이한 맛과 향기로 입맛을 돋구어주고 비타민, 탄백질, 칼슘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좋은 이 민족 음식 하나에도 질세워인들의 인민사랑이 깰어있다. 수 십년 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내가 어릴 때 만경대를 떠난 다음 제일 먹고싶은것이 건갱이였었다고, 갑자기 낯가림이 없을 때 깨끗하게 건갱이것을 조금씩 먹어 먹으면 맛이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오늘 공화국의 교육사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전반적12년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과학기술보급망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교육과 학생과들이 이루어지고있으며 교육학적요구가 완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교정들이 솟아나고 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본사기자 리 설

## 숭고한 미래관이 펼친 현실

국으로 빛내기 위한 밝은 앞길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웅대한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은 문명국 건설의 최후대, 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명예교장이 되여 대학사업을 적극 맡아주시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 영도자의 두리에 인민이 뭉친 조선의 힘은 강대하다

지역기 구인사의 조선방문기

단결의 위력으로 만민을 뭉고나가며 거창한 세기적변혁을 안아오는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령도대성 아람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야요야 자카리아 헤이롤라는 조선방문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이 공화국창건 70년을 국제적인 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 대표단 및 대표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 내린 수많은 외국인들은 비록 피부색과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뭉친 조선의 힘은 강대하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수도 평양은 아름답게 단장되고 거리들에는 강국건설을 지지하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영상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이 나라의 모습은 오직 인민의 노력으로써만 부강조국이 건설된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있었다. 지금 조선은 경제건설과 교육,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힘을 쏟고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마음이 솟아난다.



본사기자

